

# 평점 대신 ‘선택적 패스제’ vs 공정성 해칠 수 있어

〈학생〉

〈대학〉

## 대학가 성적산출 논란

비대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다수 학생들 평가 공정성에 의심 커져 상대평가로 학기 성적 산출 반대 부여된 성적, 학생이 패스·통과 선택



지난 15일 오후 인하대 하이테크센터에서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대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대학 기말고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선 성적 산출 방식을 놓고 혼란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한 비대면 온라인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되면서, 평가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진 학생들이 종전의 상대평가로 학기 성적을 매기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성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은 이 제도가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도입을 꺼리고 있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대학이 중간 기말고사를 온라인으로 시

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속출하면서 ‘선택적 패스제’ 도입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 서강대, 건국대, 인하대 등에서 시험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졌다.

‘선택적 패스제’는 학생들이 대안으로 학교 측에 제시하는 방식이다. 시험 성적이 공지되면 최종 성적을 확인한 학생이 부여된 성적을 그대로 받는지(패스·통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만약 패스로 처리하면 성적표에는 기

존의 A·B·C·D와 같은 평점 대신 ‘P(Pass)’ 표시만 남는다. P로 표시된 과목은 학점 평점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고 이수한 것으로만 반영된다. 가령 학생이 특정 과목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도 P를 선택하면 이수만 되고 학점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대학가에서 가장 먼저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곳은 홍익대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학교에 나오지 못했던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기를 이수할 수 있게 하

겠다는 취지다.

서강대 역시 지난 11일 ‘선택적 패스제’를 택했다. 앞서 서강대는 기말고사를 비대면으로 치르되 절대평가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지만 최근 한 수업에서 일부 학생들이 실습실에 모여 함께 시험을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학생들의 강력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역차별’이나 악용 사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패스할 과목은 적당히만 학습하고 A+ 받을 과목에 집중하는 악용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학생이 많아질 경우 학점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택적으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 과목은 놔두고 C 이하 학점은 패스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연세대는 ‘선택적 패스제’ 도입 없이 1학기 성적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택적 패스제’는 부정

행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시점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세대 관계자는 “1학기 성적평가제도 변경 요청과 관련해 학생, 교수, 교육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택적 패스 제도의 도입이 부정행위로 인한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는 2학기에 온라인 강의가 지속하더라도 ‘선택적 패스제’의 단점을 개선 보완하지 않는 이상 도입은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양대도 학생들의 거센 요구에 선택적 패스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한양대 관계자는 “도입 여부를 검토한 결과 (선택적 패스제를) 원칙적으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학내 관련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만큼 협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도 총학생회가 대학본부에 ‘선택적 패스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국제중 폐지 반대” 교육청 앞에 나온 학부모 영훈·대원국제중 학부모협의회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영훈·대원국제중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순천향대, 다문화가정 위한 ‘온라인 멘토링’

매주 2시간씩 맞춤형 1대1 화상대화 전용 프로그램 활용, 쌍방향 멘토링

순천향대가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멘토링 봉사활동’이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대학이 귀감이 되고 있다.

순천향대 사회봉사·적정기술센터는 삼성그룹과 사랑의 열매가 지원하는 ‘1학기 다문화 행복나눔 프로젝트(M.H.P)’를 통해 아산시 다문화 및 중도입국 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매체를 활용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순천향대는 지난해부터 아산시 지역 사회 다문화 및 중도입국 아동을 위해 ‘다문화 멘토링’을 실시했으며, 이번 학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 37명과, 아산시 다문화 및 중도입국 가정 아동 멘티 37명의 학생들이 화상 프로그램인 ZOOM,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매주 2시간씩, 맞춤형 1대1 실시간 화상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에 멘토와 멘티 상호간에 시간과



순천향대 교내 인문과학관 1층 루첼라이플에서 지난 19일 ‘1학기 다문화 행복나눔 프로젝트(M.H.P)’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아산시 다문화 및 중도입국 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매체를 활용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향대

공간에 대한 제약이 많았으나, 라이브 화상회의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쌍방향 실시간 멘토링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게 순천향대 설명이다.

서보람 (사회복지학과 18학번) 학생은 “이번 멘토링은 직접 만나지를 못해 아쉽지만, 멘티가 잘 따라와 줘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가 매 학기 개설해 운영 중인 교양과목 ‘다문화 행복나눔 프로젝트(M·H·P)’가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 체류 외국인 현황공유 및 아산시 다문화 인구의 특징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 개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현황과 멘토링의 필요성 ▲멘토링의 의미 및 방법론 교육 등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녀교육에 대해 배우고 있다.

한편, 순천향대는 2019년부터 삼성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문화 공존 역량 개발을 위한 대학 기반지원 체계 구축’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 3년간 운영된다. /이현진 기자

## 카이스트, 이산화탄소 활용기술 사전분석

에너지 효율·기술 경제성 등 파악



이재형 교수

노고산 박사

한국과 독일 연구진이 협력연구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을 평가하는 방법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산화탄소 활용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 중인 단계에서 연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유망 신기술 발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KAIST는 생명화학공학과 이재형 교수 연구팀이 아직 상용화가 안되거나 개발단계에 있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툴(Tool)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 교수 연구실 노고산 박사가 제1 저자로 참여했으며 녹색·지속 가능 기술분야 국제 학술지인 ‘녹색 화학’ 온라인에 지난달 21일 게재됐다.

다양한 신흥 녹색 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과연 유망한 기술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판단해 연구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해당 기술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높은지, 또는 향후 비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 도입이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사전에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력 부족으로 정확한 기술 분석이나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이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이 툴은 상용화가 안 돼 있거나 개발단계에 있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가 없이 일부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도 해당 기술의 에너지 효율과 기술 경제성,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다. /한용수 기자 hys@

## 박정하 교수, 한국교양교육회장 선출

성균관대

“창의·지도력 갖춘 글로벌 리더 배출”

성균관대는 박정하 학부대학 교수(사진)가 지난 20일 한국교양교육학회 주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년 춘계전국학술대회’에서 제9대 한국교양

교육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부터 1년이다.

한국교양교육학회는 2006년 10월 10일 교양·기초교육에 관한 연구와 성과의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교양기초교육의 발달과 보급을 목적으로 창립된 순수 교육·학술단체다. /이현진 기자



박정하 차기 회장은 “대학교양기초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 도덕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